영축총림 통도사, '禪茶' 문화 전파 나선다

햇차 제다 · 헌공의식 진행

'다선일미'의 선가 가르침
1989년부터 전승 시작 해
총 3천 여평의 차밭 형성
'통도사 선다연구회' 결성





영축총림 통도사는 4월 23일 통도사 염불원 옆에 조성된 다원에서 햇차 제다(사진 왼쪽) 및 헌공 의식(사진 오른쪽)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선차에 담긴 불교문화와 선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23일 통도사 염불원 옆에 조성된 다원(茶園)에서 햇차 제다 및 헌공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의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현문 스님과 율원, 강원, 선원, 염불원 스님 100여 명이 울력을 진행했다.

올 해는 유난히 동파 피해가 많아 찻잎 하나하나가 귀한 상황이었기에 동파를 이겨내고 고개를 내민 찻잎을 따는 스님들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다. 스님들은 채다 후 염불원에 있는 제다실에서 뜨거운 솥에 찻잎을 넣고 비비는 전통방식으로 차를 덖었다. 이후 스님들은 부처님께 올해 처음 제다한 차를 헌공했다.

통도사가 선차 문화 전승에 나선 것은 불교차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통도사는 창건부터 차와 인연이 깊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는 당나라서 귀국 시 '신라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문물, 당, 번, 화개' 등을 가지고 왔다. 이 때 차도 함께 가져왔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혜우 스님이 쓴 〈차와 문화〉에 따르면 자장 율사는 금강계단 주변에서 차를 직접 제다해 매일 부처님께 올렸다. 당시 차를 준비했던 장소가 감로당이다.

〈통도사 사적기〉에는 자장 율사가 조일율사를 화향제자(化香弟子)로 삼았다는 기록도 나온다. 화향이란 '차가 품은 향기'를 뜻해 역사적으로 차공양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도사는 현재 금강계단 뒤 편부터 성보박물관에 이르는 곳까지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통도사는 창건 이후 동을산 다소촌을 만들어 차를 대량으로 생산해 부처님께 차공양을 올리고 수행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동을산 다소촌은 고려시대에 운영됐던 18개의 다소촌 가운데 사찰에 차를 공급한 유일한 장소였고 '차샘과 다소촌'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통도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날 의식 후에 방장 성파 스님은 "차와 선은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은 선차 문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각종 의식에 사용되는 차와 스님들이 수행 중에 필요로 하는 차는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원력 하에 1989년 주지 소임 후 3000여 평의 다원을 직접 조성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다원을 가꾸면서 불가의 차문화를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통도사는 성파 스님의 원력을 이어 앞으로 차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통도사선다연구회'를 구성했다. '통도사선다연구회'는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 노전 우현 스님,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사회국장 성오 스님,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 광제사 주지 원행 스님이 주축으로 활동한다. '통도사선다연구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통도사의 선차 이론을 확립하며, 대중 포교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청정한 삶 살겠다" 범어사 보살계 산림

금정총림 범어사가 보살계 수계산림을 원만 회향했다. 불자들은 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발원하며 대승보살이 되어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 121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는 4월 22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과 4월 23일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4월 24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으며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계사 경선 스님의 심지법문, 천수다라니, 노사나불 정근, 보살계 법문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 회향식은 연비의식과 계첩 수여로 마무리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풍경소리, 신입포교위원 위촉식

"법음의 맑은 소리 시민들에게 치유의 언어 되길"



부산 풍경소리는 4월 27일 부산 여래사에서 '부산 풍경소리 포교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비대면의 시대 새롭게 포교 방향을 이끌어 갈 '부산 풍경소리 신입포교위원'이 위촉됐다. 풍경소리는 지하철에 걸린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부산 풍경소리(지부장 박동범)는 4월 27일 부산 여래사에서 '부산 풍경소리 포교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부산 풍경소리 포교위원들은 향후 포교를 위한 부처님말씀 게시 및 전시 활동에 동참하며 봉사 활동에 앞장 설 계획이다.

위촉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부산 풍경소리 약력소개 △부산 지부장 인사말 △위촉장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풍경소리 신입포교위원은 백은주 불자 외 9명이다.

박동범 부산 풍경소리 지부장은 "풍경소리 포교위원은 법음을 전하며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여래의 사도"라며 "풍경소리를 보시는 분들이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어 다들 밝아지시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풍경소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포교단체다. 2001년 부산 풍경소리 준비위원회 구성과 부산지하철공사와 협약을 시작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군법당, 교도소, 포교당, 학교 등에 풍경소리 엽서와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교 하화중생 실천" 일성

창원불교, 제 6대 회장 정인 스님 취임



창원시불교연합회는 4월 22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제6대 회장 정인 스님의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4월 22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회장 정인 스님(불지사), 원행 스님(정인사), 도홍 스님(불곡사), 도문 스님(정법사), 월봉 스님(석봉암), 석봉 스님(백운사), 성일 스님(수선정사), 무성 스님(구룡사), 혜명 스님(반야사), 진홍 스님(자비정사)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외 관계자가 동참했다.

취임식은 △개회 △내빈소개 △약력소개 △추대패 전달 △취임사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연합회 회장 정인 스님은 "창원시 통합 후에도 불교사암연합회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역대 회장님의 업적을 살피며 불교의 하화중생 상구보리를 실천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임고문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자와 여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희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축사에서 "좋은 리더십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에 힘찬 기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코로나 종식 기원 삼보일배

"어려움에 처한 생명들 하루 속히 회복하길"



성주사는 4월 24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성주사(주지 법안)는 4월 24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삼보일배는 성주사 입구에서 출발해 깨달음의 길을 돌아 지장전에서 마무리됐으며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김이순 성주사 신도회장, 박도선 불모학당 회장 외 경남포교사, 신도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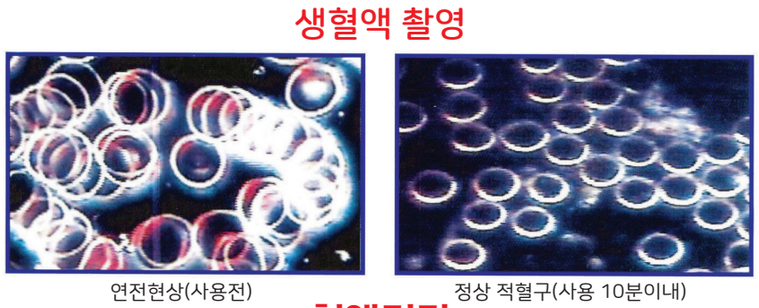
삼보일배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씀 △삼보일배 정진(석가모니 정근)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기념촬영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를 하며 거친 길과 자갈밭 등 여러 난관을 만났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사바세계와 같고 천천히 절을 하며 나아간 것은 세세생생 살아온 업의 틀을 버리는 것과 같다"며 "코로나가 극복돼 모두 옛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에 처한 고귀한 생명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도선 불모학당 34기 회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조속히 끝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며 "몸이 피곤하고 아프지만 일체 모든 생명과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원할 수 있어 보람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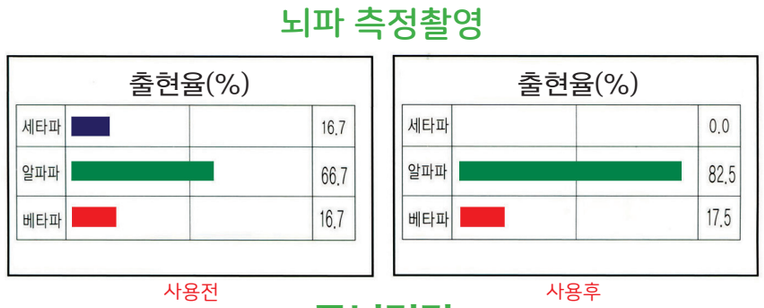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